햇빛소득마을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임실군, 공모사업 선점 위해 '햇빛소득 TF팀' 신설·전 과정 지원 공모 총력전

임실군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선점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 가운데 수요조사를 마치고,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등 선제적인 대응에 본격 나섰다.

군은 전담조직인 '햇빛소득 TF팀'을 신설해 사업후보지 발굴부터 주민참여 구조 설계, 협동조합·법인설립, 인허가 검토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군은 이미 지난 1월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8개 읍면 30개 마을이 신청하는 등 군민들의 관심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마을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이해도를 높이고 참여 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설된 TF팀은 기존 농업부서가 아닌 전기사업 인허가 및 협동조합 설립 업무경험이 있는 부서중심으로 편성, 발전사업 허가, 법인 설립, 사업구조 설계 등 초기진입 장벽을 행정적으로 선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 공모참여 수준을 넘어, 사업 실행가능성과 주민 체감 수익 모델까지 사전 설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행정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직이다.

무엇보다 주민주도형 에너지사업의 진입장벽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다.

군은 재생에너지 기반 주민소득 창출과 농촌 분산형 에너지 모델 확산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실행중심의 지방정부 준비모델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에 더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기반 소득창출과 기본소득형 수익 배분구조, RE100(기업 전력 사용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하겠다는 국제 캠페인)확산대응, 지역에너지 순환체계 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 참여구조, △마을단위 수익공유 체계, △농촌소멸대응형 소득기반 구축, △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연계효과, △장기운영가능성 등을 핵심 준비요소로 설정하고 마을설명회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주민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활성화, 에너지수익의 지역 환원, 농촌소멸 대응형 소득 기반 구축, 분산형 전원체계 전환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를 넘어 마을단위 수익공유형 에너지 자립모델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거나 마을공동 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매년 500개 마을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실군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모선점과 실질적 성과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햇빛소득마을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농촌소득 모델이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전략"이라며, "임실군은 공모대응을 넘어 실제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 속도감있게 먼저 준비하고, 주민과 함께 설계해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설 연휴 군민 안전·편의 최우선

순창군, 14~18일 7개 분야 종합대책 가동

순창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교통소통 및 안전, 생활민원 처리, 재난 대응, 의료 지원, 물가 관리, 환경정비,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군청 내에는 종합상황실이 운영되며, 행정과를 중심으로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물가, 의료, 재난 등 6개 분야별 대책반이 편성된다.

군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영농)폐기물 처리, 하수도 응급 복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 활동도 병행하여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병의원과 약국 54개소가 당번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지정되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전통시장과 성수품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군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 근무자의 복무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의회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임실군의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의원들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주문했다.

양주영 의원은 "35사단 입구 대곡마을 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행정이 현장으로 나가 소통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규 의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실제 농가 선호도가 높고 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흠 의원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실형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제 의원은 "임실사랑상품권을 전면 모바일화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지류 상품권 발행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등 유연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침체된 오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왕중 의원은 홍고추 출하 장려금 대폭 삭감을 비판하며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운송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윤 의원은 "다자녀를 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우대나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공직 사회부터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애향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등을 주문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곤충사육 농가 간담회 가져

남원시는 지역 곤충사육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곤충사육 농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과 판로 확보, 기술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남원시 관계자, 남원시의회 의원, 관내 곤충사육 농가 등이 참석했다.

곤충사육 농가들은 △곤충사육 안정화를 위한 표준화 기술 지원 확대 △곤충 가공·유통 판로 개척 △곤충산업 인식 개선 및 홍보 강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농가 육성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곤충산업 육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지원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식용 곤충을 활용한 메디푸드, 케어푸드, 소재 원료 등 활용 분야를 확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라오스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40명 선발

순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해 현지 면접을 진행하고 근로자 40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현지 선발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라오스 핫싸이퐁군에서 면접이 진행됐다.

선발 과정에는 순창군과 순창농업협동조합이 공동 참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으며,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현장 적합성과 신뢰성 있는 근로자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군은 면접에서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 체력은 물론, 의사소통 능력, 적응력,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을 마쳤으며, 최종 선정된 40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3월 16일과 4월 13일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산림재난대응단 본격 가동

남원시가 기후 변화로 인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산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칸막이식 인력 운영을 탈피하고 '통합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 3일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감시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행사에서는 대응단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안전 교육이 진행됐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산림 재난 대응 조직의 효율화다. 그동안 남원시는 봄·가을철에만 산불 진화대(45명 규모)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산사태와 병해충 업무는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왔으나 재난 유형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최근 추세에 맞춰, 올해부터 산불, 산사태, 병해충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산림재난대응단은 2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연중 운영되어, 시기별로 취약 분야에 집중 투입,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2.1~5.15/11.1~12.15)에는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외 기간에는 산사태 취약지 점검과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예찰 활동을 병행해 산림재난 전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남원시-남원시니어클럽 협약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2월 4일, 남원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현성 남원시니어클럽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가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니어클럽은 남원시가 의뢰한 지역 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돌봄 및 안부 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부 확인 결과를 시에 회신하고, 시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동사무소 담당자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추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남원시니어클럽이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추진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 지원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